DBpia

皇龍寺의 創建창건과 그 의도

The Establishment of Hwangnyongsa Temple and Intention Thereof

저자 (Authors)
朱甫暾
Ju, Bo-Don

출처 (Source)
한국사연구 , (176), 2017.3, 1-33 (33 pages)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 (176), 2017.3, 1-33 (3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사연구회
The Association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31458

APA Style
朱甫暾 (2017). 皇龍寺의 創建창건과 그 의도. 한국사연구, (176), 1-3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7 17:0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皇龍寺의 創建 창건과 그 의도

朱 甫 暾*

Ⅰ. 들어가면서
Ⅱ. 皇龍寺 창건 관련 기사의 음미
Ⅲ. 新宮 건설의 배경
Ⅳ. 신궁에서 황룡사로의 전환 배경과 목적
1. 진흥왕의 즉위와 황룡사
2. 황룡사로의 전환 배경과 목적
Ⅴ. 나가면서

Ⅰ. 들어가면서

흔히 신라 중고기를 각별하게 佛敎式王名時代라 부르면서 전후의 두 시기와 뚜렷하게 차별화시키고 있음은 두루 아는 바와 같다. 국왕의 생존 시 사용된 왕명이 불교식 용어를 빌어 지어졌다는 자체는 당대 신라의 정치나 국왕의 위상이 불교와 깊이 연루되어 있었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그 점은 法興王대(514-540)에 공인된 뒤 眞德女王대(647-654)에 이르기까지의 불교 전개 양상을 살피면 여지없이 드러난다. 기실 중고기를 특별히 불교로 치장된 神政國家라 불러도 좋을 만한 근거는 바로 이런 데서 찾아진다.

신라 중고기 불교 신앙을 비롯한 모든 지배이데올로기의 중핵적 위치에 皇龍寺가 놓여 있었음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고

* 경북대 사학과 교수
대표논저 : 2016「廣開土王碑와 長壽王」『木簡과 文字』16 ; 2014「백제사 관련 신출토 자료의 음미」『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노태돈교수 정년기념논총) ; 2014「신라 金入宅과 財買井宅」『신라문화』46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기 신라국가를 지켜주는 護國的 성격의 보물로서 인식되던[1] 이른바 3寶 가운데 두 점이나 황룡사가 보유하였다는 것은[2] 그를 뚜렷이 입증해 주는 사실이다. 황룡사는 중고기 일대를 통해 불교의 구심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최고 위상의 사찰이었다. 문헌 기록상 신라 때 창건된 어떤 사찰과 비교해도 황룡사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사실은 물론이려니와 실제 그 내용면으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짐작케 한다. 근자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발굴을 통해서 드러난 규모나 위치에서도 그 점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이처럼 황룡사가 중고기 불교의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맡은 사원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신라의 수많은 사찰 가운데 황룡사가 유난스레 연구자들의 조명을 많이 받았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황룡사는 창건될 당시부터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기까지의 실상에 대한 윤곽은 거의 잡혀진 상태이다. 그래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정보나 내용을 담고 있는 결정적 문헌이나 고고자료가 새로 출현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창건의 목적과 배경 및 위상 등의 문제를 건드려보는 것이 자칫 贅言的 성격의 언설이 됨으로써 한갓 徒勞에 그칠 수가 있다.

다만, 기왕에 그를 다루면서 당연히 고려했어야 마땅함에도 지나쳐버린 대목이 이따금씩 엿보여 이를 새롭게 다루어볼 일말의 실마리가 된다. 이를테면 당시 新宮이 설치되게 된 배경과 목적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은 없었다. 게다가 그런 신궁을 돌연히 사찰로 바꾸어 짓게 된 원인이나 요인 등에 대해서도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직결시켜 좀 더 면밀하게 추적해 보아야 마땅한 대상임에도 그러지를 못하였던 점이 발견된다. 이들을 신중하게 점검한다면 황룡사 창건과 관련해 한결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1) 金相鉉, 1980,「新羅三寶의 불교사상적 의미」『東國史學』14 ; 1999,『신라의 사상과 문화』, 一志社
2)『三國遺事』3 塔像 皇龍寺九層塔條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여기서는 그와 같은 몇몇 사정을 감안하면서 황룡사 창건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위상 등을 소박하게나마 더듬어봄으로써 실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보고자 한다.

Ⅱ. 皇龍寺 창건 관련 기사의 음미

적어도 규모면(기능면에서는 항상 그렇다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지만)에서 신라 최대 사찰로서의 위치를 줄곧 유지하였던 황룡사의 창건과 관련해 『삼국사기』에서는 겨우 다음과 같은 매우 소략한 내용만을 전해주고 있을 따름이다.

A)十四年 春二月 王命所司 築新宮於月城東 黃龍見其地 王疑之 改爲佛寺 賜號曰皇龍(『三國史記』4 新羅本紀 眞興王條)

이 기사에 따르면 진흥왕은 원래 재위 14년(553) 되던 해에 왕궁인 월성의 동쪽에다가 신궁 건설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새로이 건설할 궁궐의 위치가 월성을 기준으로 삼아 잡혀진 것으로 미루어 일단 그곳이 기존 왕궁으로 기능한 점을 유추해낼 수가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월성은 오래도록 궁궐로서 자리 잡아온 것이었다.

이때의 신궁은 뒷날의 사례처럼[3] 단순히 궁궐인 월성의 내부에, 혹은 그에 딸린 부속 건물 하나를 새로 더 보태어 짓는다는 의미로는 보이지가 않는다. 거리상, 위치상, 규모상으로 그를 훌쩍 뛰어넘어 본궁을[4] 새로이 건설하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의 신궁이란

3) 『三國史記』 8 新羅本紀 聖德王 16年條(717)에 의하면 이때에도 新宮을 새로이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 신궁은 『삼국사기』 38 직관지 中에 의하면 중앙 관부에 소속하였던 것 같으며 경덕왕대에 典設館으로 개칭되었다는 데 그 직능은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본래는 기존의 본궁(대궁)에다가 덧붙여 새로이 지은 궁이라는 의미에 불과하였을지 모르겠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표현 속에는 월성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담겨진 것 같다. 오랜 기간 평소 국왕의 중심 거처로서 본궁인 월성 대신 신궁[大宮][5]을 본궁으로 삼겠다는 의도 아래 추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왕궁을 옮기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王京 전체의 구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 보려는 좀 더 원대한 목적을 바탕에 깐 것으로 보인다. 그 점은 후술하듯이 일단 신궁을 대신해서 지은 사찰의 이름이 하필 黃龍寺, 皇龍寺로 명명된 데서 시사 받을 수가 있다. 신궁 건설에는 상당한 정치적 목적성이 개재된 일이었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본디 신궁을 지으려 하였는데 황룡이 나타났기 때문에 의아스럽게 여겨 이를 포기하고서 같은 장소에다 사찰을 짓게 된 것이라 한다. 황룡의 출현이 실제적 사실일 리는 만무하지만, 굳이 그렇게 내세우려 한 데에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내밀하게 나타내려 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면 신궁을 사찰의 창건으로 바꾸면서 다른 동물이 아닌 상상 속의 용, 그것도 그리 단순하지 않은 황룡의 출현을 굳이 假想한 데에는 본래 지녔던 목적이나 바꾸게 된 배경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려는 의도가 깃들어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위의 사료 A)에서 신궁을 지으려다가 황룡이 나타났기에 절로 바꾸어지었다고 하면서 寺名을 굳이 黃龍寺라 하지 않고 皇龍寺라 명명하였다는 데에는 약간 의아스런 느낌이 든다. 그 점을 조금이나마 해명, 보완해 볼 만한 실마리는 다음의 기사에 엿보인다.

B)-①㉠玉龍集及慈藏傳與諸家傳紀皆云　新羅月城東龍宮南有伽葉佛宴坐石 其地卽前佛時伽藍之墟也 今皇龍寺之地 卽七伽藍之一也 ㉡按國史 眞興王卽位十四年 開國三年癸酉二月築新宮於月城東 有皇龍現其地 王疑之 改爲皇龍寺(하략)(『三國遺事』3 塔像 伽葉佛宴坐石條)

-②新羅第二十四眞興王卽位十四年癸酉二月將築紫宮於龍宮南　有

4) 국립경주박물관, 2002,『文字로 본 新羅』, 국립경주박물관, 76쪽 안압지(월지) 출토 토기 명문

5)『三國史記』4 新羅本紀 眞平王 44年條 및 雜志 職官 中 內省條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黃龍現其地 乃改置爲佛寺 號黃龍寺(하략)(동상 皇龍寺丈六條)

위의 사료 B)는 모두『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황룡사 관련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서 그 가운데에는 A)보다 약간 구체적인 창건의 모습이 찾아지므로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사를 통해서 황룡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일단『玉龍集』및「慈藏傳」그리고 여타의 傳紀類와『國史』등 내용상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계통을 달리하는 몇몇의 사료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B)-①㉡에 직접 인용되어 있는『국사』가 주목된다. 이 책은 현재의 내용상으로 사료 A)와는 얼핏 일정한 出入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거의 일치한다고 하여도 무방할 듯 싶다. 따라서『국사』를 바로 현존하는『삼국사기』라 단정하여도[6] 그리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B)-①㉡에서는 A)에 보이듯『삼국사기』로부터 옮겨 적는 과정에서 黃龍을 皇龍이라 표기해버리는 잘못을 범하였다. 아마 皇龍寺라는 사찰의 명칭을 성급하게 연상한 나머지 그러한 착각을 빚어내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B)-②는 내용상 B)-①㉡과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지만 주요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여기서는 신궁을 紫宮이라 명명하여 한층 더 구체적으로 그 성격을 드러내었을[7] 뿐만 아니라 고쳐지은 절 이름도 皇龍寺가 아닌 黃龍寺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다. 사실상 황룡의 출현을 주요한 계기로 삼아 왕궁을 사원으로 바꾸게 된 점을 고려한다면 후자 쪽이 올바를 것 같다. 기실『삼국사기』의 관련 기사를 거의 그대로 轉寫하다시피 한 것으로 여겨지는『海東高僧傳』에서도[8] 皇龍寺에 대해서만 굳이 黃龍寺로 고쳐서 기술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양자 모두 엇비슷한 내용이기는

6) 李康來, 1996,『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7) 양정석, 2000,「新羅 皇龍寺·北魏 永寧寺 그리고 日本 大官大寺 -5~7세기 동아시아 都城制와 관련하여-」『한국사학보』9 ; 최선자, 2013,「신라 황룡사의 창건과 진흥왕의 왕권 강화」『한국고대사연구』72
8)『海東高僧傳』1 流通 釋法雲傳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하지만 그처럼 표현상 차이를 드러낸 것은 결국 『삼국사기』가 이용한 것과는 계통이 다른 원전도 존재하였고 이에 근거를 둔 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억측한다면 막연하게 그냥 신궁이라 표현한 것보다는(그래서 궁궐의 일부 부속 건물 가운데 하나로 오해받게 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격을 나타내는 자궁 쪽이 原狀에 훨씬 가깝다고 여겨진다. 달리 말하면 원래의 자료에는 신궁이 紫宮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으나 『삼국사기』 찬자는 편찬의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반영해 의도적으로 신궁이라고 고쳐서 기재하였던 것 같다. 요컨대 본래의 原典에는 紫宮과 黃龍寺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삼국사기』의 찬자는 결과론적 입장에서 이를 단순화시켜 新宮과 皇龍寺로 바꾸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와 같이 보면 신궁이 결코 단순한 궁궐 건물은 아니었음이 드러난다. 자궁이라 한 데서 유추되듯이 건설을 기획하였을 당시 특별한 목적과 기능을 겨냥한 왕궁으로 설정하였음이 분명하다. 자궁은 본디 외양이 紫色의 모습을 갖춘 궁전을 의미한다. 자색은 神仙이나 帝王의 주거를 나타내는 색깔로서 달리 紫禁이라고도 표현하였다. 자궁은 제왕의 居所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紫微宮이라고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진흥왕이 새로이 마련하려 한 본궁을 그렇게 자궁이라 명명하고 창건해서 옮겨가려고 한 데에는 그에 걸맞은 어떤 의미심장함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진흥왕이 스스로 황제, 제왕으로 自處하려 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데서도 그런 실상은 확인된다. 568년 세워진 「黃草嶺碑」와 「磨雲嶺碑」 등에서 진흥왕 스스로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帝王建號', '朕', '太祖'와 같은 몇몇 용어들 속에서 그런 분위기의 일단을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다.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바로 황룡사란 사찰의 이름이다.

황룡이 나타남으로써 마침내 자궁을 사찰로 바꾸어 짓게 되었다는 사실이 명분으로 내세워진 데서 저절로 드러나듯이 처음 한동안은 黃龍寺라 불리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는(언제쯤이었는지는 분명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皇龍寺로 고쳐 부름으로써 이것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이 이후 정식의 寺名으로 차츰 정착되어 갔다. 뒷날 그를 본받아 황룡사 주변 일정 범위에 지어진 사찰들은 유난스레 皇福寺, 皇隆寺, 皇聖寺, 芬皇寺 등 '皇'이라 단어를 넣은 사명이 많다. 이들은 황룡사라는 최초의 중심 사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데서 그러하였다고 추정되지만 그 주변 지역을 당시 '皇(宮)'이라고 여긴 데서 비롯한 바도 없지 않았을 것 같다. 말하자면 황룡사를 중심으로 한 일대의 일정 범위에 대해 신라인들은 각별히 '皇(地)'이라 인식하거나 그와 연관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黃과 皇은 음이 상통하며 나아가 각각에 내재된 뜻에도 비슷한 측면이 엿보인다. 그래서 이 둘은 때때로 서로 통용하기도 하였다. 황룡사를 표기할 때 양자를 간혹 혼용하는 것은 그를 방증해 주는 사실이다. 황색은 흙(土)색에서 나온 것으로서 방위를 나타내는 五方色 가운데에서 중앙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그 까닭으로 영역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천하를 지배하는 천자, 즉 황제를 나타내는 색으로 정착되어 갔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황색은 결국 자색과도 상통해서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자궁을 사찰로 바꾸어 짓기로 하면서 굳이 황색 龍의 출현을 假想해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는 역으로 신궁이 곧 자궁이었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자궁은 물론 황룡 출현의 밑바닥에는 황제의 출현을 표상하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黃, 皇은 중앙을 의미하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 밑바탕에는 자궁, 황룡사가 신라 왕경의 한가운데로서 동시에 영토의 관념적·상징적 중앙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신궁의 건설을 그냥 단순히 왕궁의 건물로서 보아 넘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흥왕은 신궁을 皇宮, 즉 황제의 거처라는 생각을 갖고서 추진한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법흥왕 재위 후반기부터 신라의 정식 왕호는 麻立干的 성격을 강하게 지녔던 寐錦王으로부터 大王(太王)으로 바뀌었다. 왕호는 왕권의 성격과 위상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왕호가 바뀐다는 것은 왕권의 위상이나 성격이 크게 달라졌음을 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미하는 사실이다. 후술하듯이 진흥왕대를 거쳐 실질적으로 대왕, 태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체제가 갖추어져 가면서 그런 인식이 한결 더 강화, 보강되어 갔다. 앞서 소개한 비문에 나오는 것은 그를 뚜렷하게 증명해 주는 사례이다. 그런 점을 당연시 여기도록하기 위한 명분의 하나로서 내세워 뒷날 황룡이 출현하였다는 설화를 창안, 부회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신라가 신궁, 즉 자궁을 건설하려 한 데에는 부체제로부터 새로운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로 전환해 가면서 자칭한 신라의 大王, 太王 속에는 황제라고 과시하려 한 의도까지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그런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Ⅲ. 신궁 건설의 배경

황룡사의 창건으로 귀결되고 말았지만 진흥왕이 신궁을 건설하려 한 목적은 원래 皇帝的 성격이 담긴 皇宮을 건설하려는 데에 있었다. 그런 성격의 신궁을 건설하려고 기획한 데에는 당시 나름의 배경과 목적 등이 작용하고 있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황룡사 창건으로 바뀌게 된 궁극적 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신궁 창건의 배경 등을 먼저 명확하게 드러냄이 순리이겠다. 그래야만 황룡사로 고쳐진 요인과 배경 및 의도도 제대로 밝혀질 터이기 때문이다. 그 점과 관련해서 먼저 지적해 두고 싶은 점은 법흥왕이 사망한 뒤 장례를 치루면서 葬地를 기왕과는 유다르게 선정하였다는 사실이다.

법흥왕은 재위 27년째인 540년 사망하였거니와 장지가 哀公寺 北峯으로 결정되었다[9]. 당시 興輪寺만이 유일하게 국가로부터 공인된 사찰이었을 뿐, 애공사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그보다 한참 지난 뒤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 부근에 위치한 국왕의 원찰로서 창건

9)『三國史記』4 新羅本紀 法興王 27年條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된 조그마한 사찰이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장지의 위치를 가리키는 그 기록도 당대의 것이 아니라 애공사가 창건되고 난 뒤 그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이 유추해내었을 터이므로 그 사료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해야겠다. 현재 애공사의 위치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법흥왕릉을 비정해내기란 그리 용이하지가 않다. 법흥왕릉의 위치를 둘러싸고서 그동안 약간이나마 논란이 제기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10]. 다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당시의 실상과 함께 현재의 무덤군 및 내부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西岳(선도산)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열을 지어 조성된 무덤군의 4기 가운데 어느 하나일 것으로 진단함이 일반적이다[11].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법흥왕릉이 처음 조성되기 이전까지 신라 王陵의 위치에 대해서는 명시적 기록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물론『삼국사기』신라본기에 의하면 혁거세 이후 婆娑尼師今대에 이르기까지의 5대 왕릉에 대해서는 마지막 沒年 기사에 장지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성격의 기록들이다.

그들 가운데 昔氏인 탈해이사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朴氏로서 무덤은 공통적으로 曇巖寺 북쪽에 있는 '蛇陵園內'라고[12] 명시되어 있다. 단지 탈해이사금에 대해서만은 현재로서는 위치를 가늠하기 힘든 '城北壤井丘'라고 막연하게 표현함으로써 전혀 다른 곳으로 비정해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삼국유사』王曆篇에서는 혁거세 이하 5대

10) 현재 사적 176호로 공식 지정되어 있는 법흥왕릉이 잘못 비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11) 이에 대해서는 이근직, 2012,『신라왕릉연구』, 학연문화사 참조. 다만, 법흥왕릉이 서악동 고분군의 4기 가운데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냐를 놓고 전혀 상반되는 두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2)『三國遺事』3 興法 阿道基羅條에 의하면 前佛時의 일곱 개의 절이 있던 터 가운데 마지막에 위치한 婿請田에다가 曇巖寺를 세웠다고 한다. 이 일곱 절터가 열거된 순서는 거기에 사찰이 세워진 순서에 따른 것이므로 담엄사는 자연히 바로 앞의 四天王寺가 창건된 679년보다 뒤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까지의 박씨 왕릉에 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탈해이사금에 한해서만 '王崩水葬未召蹏井丘中 塑骨安東岳 今東岳大王'이라 하여 장지 및 장례의 대략적 양상을 밝혀놓고 있을 따름이다. 약간의 출입은 있지만 그와 대동소이한 내용은 紀異篇의 '第四脫解王'條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같은 기이편의 '新羅始祖 赫居世王'條에서는 혁거세의 무덤이 五陵, 곧 蛇陵園에 조영된 사실과 배경 등을 명기하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 세 왕릉에 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한편 같은 책의 왕력편에서는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던 나물마립간의 무덤에 대해서 '陵在占星臺西南'이라는 내용을 새로이 밝혀 두고 있다. 나물마립간릉이 점성대, 즉 선덕여왕대에 세웠다는 瞻星臺를 주요 기준으로 해서 위치가 운위된 사실을 참작하면 한참 뒷날에 이르러 비정되었음이 확실시된다[13].

이상과 같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신라 초기 왕릉의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기록으로 남겼다. 그 가운데 특정 족단의 시조인 혁거세와 탈해의 무덤은 다른 왕릉과는 다르게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공통적으로 기록상에 등장한다. 그리고 6대인 祗摩尼師今 이후에는 아예 아무런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른 시기의 것은 기재된 반면 그보다 한참 지난 뒤의 그것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은 거꾸로 전자가 후대에 이르러 의도적인 목적 아래 소급, 부회해서 비정되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기록 자체는 실상과는 상관이 없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그런 사정에 견주어 법흥왕릉을 주된 기점으로 해서 이후의 왕릉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인다. 『삼국유사』 왕력과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도 법흥왕릉에 대해 양자는 모두 동일하게 '哀公寺北'이라 명시해 두고 있다. 이후 신라 국왕의 장례 양상이나 장지 등은 대단히 소략하지만 상대적으로 구체성을 띄면서 기록상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특징적 면모를 보인다. 거기에는 상당한 구체성이

13) 그런 점에서 무조건 그를 결정적 기준으로 삼아 현재 나물왕릉을 비정하려는 시도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뒤따른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담겨져 있으므로 각별히 의문을 품을 만한 요소는 별로 찾아지지 않는다.

이런 정황은 법흥왕의 사망과 왕릉 조영을 계기로 해서 국왕의 葬儀 및 葬地에 대해 어떤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을 상정케 하는 대목이다. 아마도 거기에는 그럴 만한 무엇인가 특별한 명분과 계기, 그리고 그를 기념하고 특필해야 할 정도의 의미가 담겨진 데서 비롯한 것으로 여겨진다. 달리 말하면 법흥왕의 죽음과 함께 진행된 葬儀 및 무덤의 조영 등은 그 이전과는 현저하게 달라지는 어떤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일대사건이었다. 그와 같은 변화의 조짐은 법흥왕이 재위하던 때부터 이미 존재하였으며, 그의 사망과 무덤 조영을 계기로 본격화된 일이었다. 아래에서는 그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법흥왕 이전의 신라 왕릉이 일정 기간 경주분지 중앙부의 황남동, 황오동, 노동동, 노서동 등 넓은 범위의 이른바 大陵園地區의 구릉상에 줄곧 조성되었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그 점은 현재까지 치러진 고고학 발굴을 통해 거의 명백하게 입증된 사실이다. 이곳에 조영된 무덤들 대부분은 내부가 積石木槨墳이라는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일반적 양상과는 다르다. 이것이 곧 당시 신라 지배집단의 正體性을 명확하게 상징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적석목곽분의 시원이나 유래 및 계통 등을 둘러싸고서 크게 논란되어 왔지만, 그것은 여하튼 읍락국가인 斯盧國을 기반으로 해서 4세기 전반 무렵 출현한 신라국가가 이후 6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적석목곽분을 지배집단의 주류적 묘제로 삼았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와 같은 형식의 묘제는 대부분 경주분지 일대에서만 조영되었으므로 거기에는 신라 최고 지배집단의 정체성과 함께 그들 중심의 상대적 배타성이 담긴 것으로 이해된다.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된 일부 특정 지역에 한정해 적석목곽분이 조영된 사실은 고고발굴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이는 被葬者, 혹은 조영의 주도자가 신라의 중앙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방증해 주는 증거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14].

이상과 같이 적석목곽분이 집중적으로 조영된 대릉원지구는 일정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기간 신라 최고 지배집단의 공동 墓域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약간 의아스럽게 여겨지는 대목이 찾아진다. 4세기 중엽 이후 6세기 초반까지 적석목곽분이 조영되던 시기에는 신라사회가 정치적 독자성을 강하게 견지하던 집단인 6部를 근간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 까닭으로 그런 지배체제를 흔히 部體制, 혹은 부체제사회라 부르고 있다. 최고 지배자인 麻立干도 사실상 신라국왕이기에 앞서 그들 6부 가운데 가장 유력한 喙部(梁部) 소속의 구성원으로서 그 部長이었을 따름이다. 그래서 인명을 표기할 때 자신의 출신 部를 다른 유력자들과 마찬가지로 밝히고 있었던 것이다[15]. 이는 당시 마립간조차 배타적 절대권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서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과 한계가 뒤따랐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6부의 대표자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신라국가의 중대한 일들이 논의·결정되었으며, 마립간은 그 회의의 주재자였지만 초월적인 절대권자는 아니었다. 말하자면 신라의 6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국가를 운영하던 지배체제가 바로 부체제였다[16].

이처럼 6부 각각은 정치적 독자성을 강하게 지닌 집단이었으므로 그 지배집단의 무덤군도 당연히 여기저기에 흩어져 따로 群을 이루어 조성되었다고 假定하고서 줄곧 그를 찾는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껏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은 다 아는 바와 같다. 이는 어쩌면 기본적 前提 자체에 근본 문제가 내재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6부 각각이 독자성을 지닌 단위정치체이기는 하지만 신라국가의 중대한 일을 모여서 공동으로 논의해 결정한 사실을 염두에 넣는다면 그들은 묘역을 공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당시 6부 지배층의 무덤은 모두 공동으로 관리되던 구역에 함께 조성되었을 것이란 사실이다. 그것이 곧 현재 경주분지의 중심부인 넓

14) 이희준, 2007,『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15) 朱甫暾, 1992,「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新羅를 中心으로-」『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6) 朱甫暾, 2006,「신라의 部와 部체제」『釜大史學』30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은 의미로서의 대릉원지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의 단편적인 기록과 고고학 조사에 근거하는 한 6부 가운데 오직 牟喙部(牟梁部)만 각별하게 따로 떨어져 무덤을 조영하였음이 확인된다. 가장 약체였던 모량부가 공동 묘역을 벗어나 그들만의 무덤군을 따로 조영하였음이 분명하다면 어디에서건 다른 5부의 무덤군도 또한 확인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조사 작업을 실시해 왔으나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모량부를 제외한 나머지 5부는 다함께 묘역을 조성한 것으로 봄이 올바른 진단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당시 6부가 공동으로 정치 운영을 수행한 사실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사례이다. 묘역을 공유하였다는 것은 당시 부별로 강한 독자성을 보유했음과 동시에 신라국가 지배자집단으로서 한결 큰 국가공동체에 소속한다는 의식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17]. 이것이 곧 신라국가 성립 이후 결성된 부체제의 특징적 면모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부체제적 지배질서가 변함없이 이어진다면 공동 묘역도 역시 그대로 유지되어 갔을 터이다. 그렇지만 법흥왕대에 이르러서 제반 실상이 확연히 달라졌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흥왕의 장례를 계기로 공동의 묘역 조성 관행에서 일단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제 신라국가의 왕릉은 6부(사실상 5부) 지배집단과 함께 무덤을 조성하던 공동 묘역을 떠나 다른 새로운 지역에다 그들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무덤 群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출발점을 이루는 것은 기록상, 고고자료상으로 보아 법흥왕릉이었음이 명백한 사실이다. 왕릉의 위치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그와 궤를 같이한다. 이후 왕릉은 대릉원지구와는 다른 별개의 지역으로 흩어져 조영되었다. 물론 법

17) 어쩌면 신라의 성립으로 과거의 개별국가와는 다르게 地方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대상이 탄생한 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서 내부 求心力이 작용한 결과로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집단 묘역의 운영은 곧 왕경지배자공동체의 출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흥왕릉의 조영 이후 한동안 같은 지역에 오로지 왕릉만으로 하나의 군을 이루었지만 이는 단지 과도기였을 따름이다. 장차는 국왕권의 강화 및 가계 분화로 인해 왕릉은 완전히 각각 따로 나뉘어 경주 전역으로 흩어져갈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었다.

이처럼 왕릉이 6부 지배집단의 공동 묘역으로부터 벗어나 조영되면서 일정 기간 왕릉만의 집단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신라 내부에서 무엇인가 그럴 만한 중대한 변화가 벌어진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해도 무방하다. 그것이 곧 부체제로부터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배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본질적 변화이다[18]. 무덤 자체가 따로 조영되었다는 것은 국왕의 위상이 그 전과는 현격하게 달라졌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왕 및 그를 잇는 후계자들만으로 동일한 지역에서 공동의 무덤군이 조영된 것은 특정 가계의 강한 계승성을 표방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과정에서 국왕 중심의 일정한 혈연적 범위내의 직계 尊屬과 卑屬만을 왕족으로 정식 인정하는 혈연의식이 새로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왕릉만이 따로 조영되었다는 것은 곧 대릉원구역이 지니고 있던 본래의 기능이 없어지기 시작하였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공동 묘역의 기능이 변화하는 밑바탕에는 곧 지배체제의 변화, 바꾸어 말하면 국왕의 위상에서 현저한 변동이 일어났음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부체제의 해체임과 동시에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귀족국가의 성립이었다. 이로써 국왕의 위상은 部를 뛰어넘어 超越者的 위치로 부상해 갔다. 무덤군의 변화는 곧 신라국왕의 위상이 그처럼 달라진 사정을 뚜렷하게 반영해 주는 구체적인 사례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제는 6부가 지닌 공동체성, 즉 부체제적 질서가 약화·소멸되어간 반면 국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체제는 한층 강화되는 길을 걸어갔다. 이처럼 법흥왕대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가 확연히 열렸으니, 그것이 곧 불교를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로 삼은

18) 朱甫暾, 1992, 앞 논문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중앙집권적 귀족국가의 출현이었다.

신라 지배체제상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법흥왕 직전의 智證王이 즉위하면서부터였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즉위가 불가능하였을 사탁부 葛文王 출신의 지증왕이 매금왕(마립간), 즉 신라국왕의 지위에 오르면서 기존 부체제적 질서는 자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아가고 있었다. 지증왕이 추진한 殉葬 금지, 勸農과 牛耕의 장려 정책, 국호의 확정과 신라국왕 존호의 推尊, 喪服法 頒行, 軍主의 지방 파견 등은 그런 양상을 담은 일괄적인 개혁성을 띤 시책들이었다. 지증왕의 정통 계승자인 법흥왕은 父王의 정책을 착실히 이어갔다. 법흥왕은 중앙의 군사권을 결집시키는 兵部를 신설한 뒤 잇달아 율령의 반포, 불교의 公認, 上大等 설치 등 지배체제 전반의 변화를 담보한 이렇다 할 굵직한 革新策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 절정에 도달한 536년에는 建元이란 독자적 연호의 사용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부체제적 질서는 해체되고 중앙집권적 지배질서의 기반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셈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왕의 위상은 현저하게 고양되어 갔다. 그런 근본적 변동을 겪었기에 비로소 진흥왕이 어린 나이에도 즉위가 가능해진 것이었다.

그렇다고 기존의 부체제적 질서와 운영체계가 하루아침에 말끔히 해소되고 모든 것이 일시에 새로운 지배체제로 전환한 것은 아니었다. 부체제의 잔재는 이후 오래도록 남아 인명을 표기하는 데에 반드시 사용된 것처럼 작동하기는 하였지만 약화되는 방향을 나아감이 대세였다. 그에 대신해 국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지배질서는 점점 강화, 정착되어 나갔다. 이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유지해나가는 데 주요 기반이 마련되었으니 그것이 곧 骨品制와 官等制 및 官府制 등에 토대한 官僚制였다. 이들은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을 갖추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법흥왕, 진흥왕대를 거치면서 점차적 과정을 밟아 정비되어 갔다.

그런 새로운 지배체제의 중심에 놓인 기본 축은 현실 권력의 총체로서 국왕과, 그를 밑받침해주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불교라는 종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교였다. 이제 현저히 달라진 국왕의 위상에 어울리도록 직전과는 차이 나게 겉으로도 권위와 위엄을 내세우고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국왕의 면모가 여타 귀족 관료와는 다름을 차별적으로 인식시키는 데에 매우 긴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위용을 갖도록 궁궐을 丹粧하는 일이었다. 그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사후의 무덤을 따로 조성한 사실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무덤은 피장자만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살아있는 계승자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왕릉만을 따로 조성함으로써 국왕의 달라진 면모를 뚜렷이 드러내어 보이려 하였지만 실질적인 과업은 국왕의 평소 거처인 왕궁을 그에 어울리도록 새로이 단장하는 일이었다. 법흥왕의 사후세계라 할 무덤을 조영할 때에 진흥왕의 거처인 왕궁을 쇄신하는 과업은 시행될 시점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Ⅳ. 신궁에서 황룡사로의 전환 배경과 목적

1. 진흥왕의 즉위와 신궁

왕궁과 함께 국왕의 위엄을 겉으로 드러내는 또 다른 주요한 수단은 그를 보위하는 神殿이라 할 불교의 사원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즉각 불교를 앞세워 국왕의 권위를 높이는 데까지 나아가지를 못하였다. 당시 불교에 대한 이념적·사상적 기반이 아직 그리 충실한 상황도 아니었고, 또 그럴 만한 역량을 제대로 구비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다. 일단 불교 공인의 과정에서 구심의 역할을 맡게 할 의도에서 창건을 기도하였지만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그만둔 興輪寺의 건설 과업은 법흥왕이 재차 시도해 진흥왕 5년(544) 일단의 완성을[19] 보았다. 비록 大王寺, 大興輪寺, 大王興輪寺라 이름붙이기는 하

19)『三國史記』4 新羅本紀 眞興王 5年條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였으나 규모면에서는 물론 내용면에서도 달라진 신라국왕의 위상이나 국가 체제에 적절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띤 것은 아니었다. 흥륜사는 기존 前佛 시대의 七處伽藍이 자리한 7곳의 전통신앙과 관련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天鏡林에 세워졌다[20]. 그런 곳에다 흥륜사를 창건하려 한 것은 불교가 전통신앙을 대체해 나가던 양상의 일단을 반영하는 것으로[21] 풀이된다. 흥륜사는 진흥왕대에 완성되었지만 불교 공인이나 법흥왕의 원찰로서 기능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을 뿐 원래 확연히 달라진 신라국가의 면모나 국왕의 위상을 과시하는 용도로서 창건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불교 사원이 신라국가의 위세와 국왕의 위상을 과시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데에는 또 다른 대규모 사원의 출현을 기다려야 하였다.

사실 궁궐과 사원의 양자가 제대로 모습을 갖추기 위한 대전제는 그들이 포함된 왕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꾸며내는 일이었다. 달리 말하면 기존 도시를 일정한 기획 아래 재구성하는 엄청난 작업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하였다.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月城 중심의 기존 도시 구조 위에서는 왕경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업이 성사되기가 어려웠다. 당시 신라 왕경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꾸려나가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무덤군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배자공동체의 상징이었다고 할 기존의 무덤군은 6부(사실상은 5부)가 교차하는 중앙부에 자리해 부체제적 질서의 유지에 역할과 기능을 다해왔지만 이제 국왕을 정점으로 한 새로운 지배체제가 구축된 마당에 그것은 한갓 걸림만 될 뿐이었다. 죽음과 관련된 의식의 구심은 이제 차츰 사원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따라서 더 이상 지배집단의 무덤을 거기에 조성할 필요성이 없어졌던 것이다. 기록상 법흥왕릉의 조영으로부터 그런 작업이 비로소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법흥왕대 지배체제 정비 과정에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었

20) 『三國遺事』 3 興法 阿道基羅條
21) 李基白, 1954, 「三國時代 佛敎 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 『歷史學報』 6 ; 1986, 『新羅思想史硏究』, 一潮閣, 29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다고 함이 적절하다. 한동안 그런 과제가 논의되다가 법흥왕의 사망을 계기로 가시화되었을 따름이다. 무덤군 조성의 변화를 기치로 해서 바야흐로 새로운 지배체제에 걸맞은 신라 왕경 건설의 막이 올랐던 것이다. 그를 추진하는 중심에 놓인 것은 역시 본궁인 신궁의 건설이었다.

6세기에 들어와 신라국가의 면모는 일신되고 국왕의 위상도 크게 달라져 갔다. 그런 분위기 아래에서 진흥왕은 伯父 법흥왕을 뒤이어 540년 7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생모로서 법흥왕의 딸이기도 한 只召太后가 당대의 명신 異斯夫의 도움을 받아 攝政하였다.

법흥왕대에 시작한 흥륜사 창건 작업이 상당한 곡절을 겪은 끝에 진흥왕이 완공한 사실에서 암시되듯이 그는 법흥왕의 업적을 이어받아 국왕 중심의 지배체제를 한층 더 깊이 뿌리내리는 과업을 적극 추진해 갔다. 이사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라국가의 역사를 정리할 목적에서 『國史』를 편찬한 것은 그를 뚜렷이 보여주는 실례이다. 그것은 새로이 변화된 시대 상황에 걸맞게 지난날을 정리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점검, 재정립하는 일이었다. 군사적으로도 兵部令을 1인 더 증치하고, 신라 최고의 핵심 군단으로서 大幢을 설치하였으며, 지방에다가는 뒷날 지방군단의 중핵으로 기능하게 되는 10停 가운데 일부를 두었다. 대체로 진흥왕대 전반의 지소태후 섭정기는 군사조직을 크게 강화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와 같은 군사조직의 정비는 바로 얼마 뒤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대대적인 영역 확장 사업에 대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정지작업이었다. 이미 한강 유역을 대상으로 삼은 영역 확장 기도는 고구려와 백제의 두 나라가 서로 치열하게 공방전을 거듭하던 대상인 道薩城과 金峴城에 대해 두 나라 모두 피폐해진 틈을 엿보아 일시에 장악하면서 서막이 올랐다[22]. 바로 이 무렵 건립된 丹陽新羅赤城碑를 통해서도

22) 朱甫暾, 2006,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관계 - 신라의 漢江流域 진출과 관련하여-」『북방사논총』 11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짐작되듯이 신라는 남한강 상류지역까지 동시에 진출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 이듬해인 551년 봄 眞興王은 成年의 나이가 되자마자 곧바로 親政을 시작하였다. 법흥왕이 마련한 최초의 연호 建元을 당분간 이어서 사용한 것은 마치 정책 전부를 그대로 계승하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진흥왕은 친정하자마자 즉각 開國이란 연호로 바꾸었다. 그 밑바탕에는 어떤 의미심장함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그 점은 개국이란 연호 자체에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 개국이란 글자 그대로 '나라를 연다'는 뜻이므로 그를 사용한 자체는 예사로워 보이지가 않는다. 신라국가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진흥왕의 강력한 의지가 스며들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23]. 과연 진흥왕은 신라국가를 어떻게 열어나가려고 하였던 것일까.

결과적 사실을 통해서 그 점을 거꾸로 유추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하나는 그야말로 활발한 外征을 통해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인적·물적 토대를 늘려나가 신라국가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이었다. 말하자면 개국의 표명 속에는 영토를 광대하게 넓힌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다. 그것이 뒷날 삼국 가운데 성장, 발전이 가장 뒤늦었던 신라가 앞서 간 두 나라를 따라잡아 경쟁 구도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바로 직후 백제 및 가야와 연합해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한강 유역으로 진출해 그 일대를 손에 넣는 데 성공하였음은 그를 뚜렷이 방증해 주는 사실이다. 그 뒤 곧바로 백제가 장악한 한강 유역의 중심지 漢城에까지 진출하고, 그로부터 유발된 백제와의 管山城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 여세를 몰아 大加耶를 비롯한 낙동강 以西 지역 가야 전체 영역을 도륙하고, 동해 연안을 따라 북상해 황초령과 마운령 등 고구려 영역의 깊숙한 곳까지 진출하는 등 승승장구해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돌이켜 보면 신라 건국 이후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크게

23) 朱甫暾, 2014,「거칠부의 出家와 出仕」『韓國古代史硏究』76, 190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영토를 확장시켜 급속한 발전을 이룬 시기라 평가할 수 있다. 개국이란 연호에 정말로 걸맞은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이로써 신라는 외형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두 나라와 적어도 비등하거나 혹은 능가할 정도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개국이란 표현에 적절히 어울리게 內政을 가다듬는 일이었다. 물론 대당 설치를 비롯해 군사 정비를 벌써부터 추진해 왔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만으로 고양된 국왕의 권위가 저절로 드높여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왕의 위세를 帝王에 걸맞도록 외양을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럴 때 가장 긴요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상은 아무래도 국왕의 거처인 왕궁의 문제였다.

국왕이 살고 있는 월성을 그대로 본궁으로 이어가서는 크게 고양된 국가나 국왕의 위상에 걸맞은 政令이 제대로 실현될 수가 없었다. 왕궁의 쇄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었다. 왕궁의 쇄신은 곧 왕경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양자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왕경 재정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무덤군의 존재였다. 무덤을 바깥으로 옮겨 조성하는 작업은 이미 추진되기 시작한 상태였다. 법흥왕의 사후 거처인 왕릉은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다른 곳에다 조성한다고 결정되었을 때 왕경 전체의 쇄신은 물론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궁궐의 건설 기획도 벌써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업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정지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당장 실현에 옮기기가 곤란하였을 따름이다. 그래서 신궁을 건설하려는 일은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진 뒤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왕궁을 새롭게 세우려는 작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일이었는지는 뚜렷하게 드러나지가 않는다. 다만, 앞서 든 사료 A)나 B)에서는 553년 신궁을 건설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를 추진하던 도중에 황룡의 출현으로 佛寺로 고쳐짓게 된 것이라고 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이 해가 곧 황룡사의 완공은 어떻든 창건 작업이 시작된 해임은 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지만 궁궐도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에는 주저되는 바가 있다. 물론 사료가 보여 주는 액면 그대로 553년 새 궁궐을 지으려는 작업 자체도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개국이란 연호의 사용을 고려하면 그를 위한 구체적인 기초 작업은 이미 551년부터 시작하였을 공산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개국이란 연호 사용에는 새 궁궐을 창건하겠다는 의지까지 깃들어 있었을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신궁의 창건 작업을 실제로 추진해 나가다가 553년에 이르러 어떤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사찰의 창건으로 급선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것이 신라국가는 물론 고양된 국왕의 위상을 드러내는 데에 한층 더 유용하였으며, 실질적인 효과를 낼 터이기 때문이다. 그 점을 추적해내기 위해 먼저 궁궐의 위치 선정 문제부터 살펴봄이 적절하겠다.

신궁의 위치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한 몇몇 사료에서는 막연하게 월성의 동쪽이라고 밝혀놓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명확한 지점이나 본래의 상태를 제대로 가늠해낼 수가 없다. 다만, B)-①㉠에서 진흥왕의 말년 만들어지는 황룡사의 丈六尊像이 자리한 곳을 伽葉佛宴坐石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위치를 '新羅月城東龍宮南'이라 명시하고 있는 대목이 눈에 띈다. 신궁에 대신해서 들어선 황룡사를 월성의 동쪽이라고 한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龍宮의 남쪽이라고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혀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용궁남'이란 표현만으로는 명확한 위치를 확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래에 소개하는 사료에서는 그에 대한 위치나 상황을 좀 더 뚜렷하게 알게 하는 근거가 찾아져 주목된다.

C)(상략)其京都內有七處伽藍之墟 一曰金橋東天鏡林(今興輪寺 金橋謂西川之橋 俗訛呼云松橋也 寺自阿道始基 而中廢 法興王丁未草創 乙卯大開 眞興王畢成) 二曰三川歧(今永興寺與興輪同開) 三龍宮南(今黃龍寺 眞興王癸酉始開) 四曰龍宮北(今芬皇寺 善德甲午始開) 五曰沙川尾(今靈廟寺 善德王乙未始開) 六曰神遊林(今天王寺 文武王己卯開) 七曰婿請田(하략)(今曇嚴寺)(『三國遺事』3 興法 阿道基羅條)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이 기사는 신라 통일기, 좀 더 구체적으로는 下代 초쯤에 세워졌으리라 추정되는[24] 阿道本碑에 보이는 내용이다. 신라에 불교를 처음 전한 아도화상의 생모 高道寧이 출가한 아들에게 미래의 신라 불교 전파를 점지했던 예견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석가모니 출현 이전부터 신라가 불교와의 인연을 맺고 있었음을 강조한 대목으로서 든 이른바 '前佛時七處伽藍'의 터 가운데 보이는 내용이다. 주목되는 점은 황룡사가 창건된 곳을 역시 '龍宮南'이라고 명시한 반면 善德女王대에 창건된 芬皇寺의 위치를 '龍宮北'이라고 표현한 사실이다. 이로 보면 용궁을 사이에 두고 황룡사와 분황사가 마주해서 자리한 셈이 된다. 왜 두 사찰의 사이를 그처럼 유독 용궁이라 지칭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그렇게 불릴 만한 여러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래 황룡사 주변 지역 일대는 月池(雁鴨池)의 존재를 통해서 짐작되듯이 湧泉水가 솟구치는 저지대였다. 아마도 평소 많은 물이 고여 있었던 저습지였으리라 추정된다. 황룡이 여기에서 출현하였다고 설정한 그 자체가 그와 같은 추정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는 사실이다. 신라인들은 그 가운데 물이 가장 많고 깊은 곳을 각별히 용궁으로 여겨서 그곳에 용이 살면서 출몰하기도 하고 저 먼 바깥세계와도 내왕하는 그런 곳이라고 인식해서 평소 龍神신앙의 대상지로 삼고 있었을 공산이[25] 크다. 굳이 그곳을 왕궁으로 삼으려 기획한 데에는 출현한 용을 황룡이라 설정한 사실로 보아 경주분지의 중앙부로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용신신앙의 주요 대상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굳이 바로 그 남쪽에다 신궁을 지으려고 기도한 데에는 상당한 목적성이 깃든 것으로 보인다. 그를 중심으로

24) 아도본비는 아도비, 阿道和尙碑 등의 이름으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 보인다. 韓奈麻 金用行이 찬문하였다고 하는데 실물이 남이 있지 않아 건비 시점이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大奈麻를 韓奈麻라고 표기한 점 9세기 초 승려나 초전 불교 관련 현창사업 아래 비문이 많이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때의 일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듯 싶다.

25) 申東河, 2001, 「신라 佛國土思想과 황룡사」 『신라문화제학술회의발표논문집』 22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東西에 위치한 명활산과 西岳, 남북에 위치한 南山과 金剛山을 각각 연결하면 두 선이 만나는 십자로 지점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황룡사이다. 따라서 경주분지의 거의 중앙부에다가 신궁을 건설하려 한 것은 비록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굳이 중앙의 색을 뜻하는 황룡의 출현 설정으로써 그런 의도를 나타내려 한 것이었다.

신궁을 용궁, 즉 저습지를 메우는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힘들게 감행하면서까지 왕경의 중앙부로 여겨지는 곳에다가 왕궁을 지으려 한 데에는 강한 목적성이 깔려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왕궁인 월성이 경주분지 남쪽 편의 南川(蚊川) 가에 치우쳐 자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한 집권적 지배체제를 수용하고 감당해내기에는 내부의 공간이 너무나 비좁았을 터였다. 월성은 고양된 국왕의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는 데는 초라하기 그지없어 뚜렷한 한계를 보이는 곳이었다. 따라서 엄청난 무리를 감행해서라도 왕궁을 중앙부로 옮겨 그 규모와 외양을 한층 크고 찬연하게 치장할 생각을 가졌을 법하다. 특히 그와 같이 의도한 밑바탕에는 단지 왕궁만이 아니라 그를 주축으로 삼은 새로운 왕경의 건설을 기획한 것이라 하겠다. 정연한 도로망을 갖춘 데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소위 坊制의 본격적 실시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때의 도시계획은 곧『周禮』고공기에 보이듯 왕궁을 한가운데에 둔 왕경의 경영을 뜻한다. 아마도 거기에서 표방된 이상에 따라 왕궁을 왕경의 중앙에 둠으로써 신라국가와 국왕의 권위를 드높이려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정치적 의도성을 갖고 추진된 신궁 건설 계획이 갑작스레 취소되고 사원으로 바뀌었다.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 중앙부에다가 야심찬 목적을 갖고 왕궁을 건설하려다 급작스럽게 사원으로 바꾼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아 넘길 일은 아니다. 그 밑바탕에는 주요한 정치적 계기나 목적이 작용하였으리라 추정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 아래 근본적 수정이 벌어진 것이었다. 왜, 언제, 무엇 때문에 그처럼 계획의 근본적 수정이 일어난 것일까는 매우 궁금하게 여겨지는 대목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2. 황룡사로의 전환 배경과 목적

이미 설정된 왕궁을 대신해 짓게 된 사원을 왕경의 중앙부에다 두려 한 것은 주목해볼 만한 어떤 큰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왕궁 건설의 계획과 포기 및 황룡사 창건으로의 전환, 그리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의 근본적 수정에는 정치적 환경과 함께 불교가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사실 불교가 공인된 시점은 당시를 기준으로 겨우 이십년 남짓하였다. 따라서 신라인들의 불교 교리나 기본 경전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았을 것 같지는 않다. 당시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사찰도 오직 흥륜사와 영흥사 두 개 뿐이었고, 544년 흥륜사의 완공과 함께 이제 막 승려의 정식 출가가 허용된 정도에 불과하였다. 당시 불교는 갓 발을 떼어 걸음마를 시작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梁나라에 갔던 유학승 覺德이 549년 그 사신과 함께 佛舍利를 갖고 귀국하였다. 바로 이 무렵이 교리나 신앙의 체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점이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정식의 漢譯 불경이 대량 신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550년에는 安藏을 大書省에 임명하는 등 처음으로 僧官 조직 체계를 갖추었다. 대서성은 국왕의 자문에 응하고 외교문서로서의 國書나 詔書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던 승관직이었다.

그와 같은 불교계 동향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신궁 건설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황룡사로 바꾸어 지으려한 것은 기실 破天荒的인 일대사건이라 단정하여도 무방하리라 여겨진다. 그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나 앞서 소개한 관련 사료들에서는 겨우 바뀐 사실 자체만을 지극히 간략하게 기술하였을 따름이다. 그렇게 된 배경이나 계기, 목적 등 어느 것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가 않다. 약간 주목해볼 현상은 단지 황룡의 출현만을 유난스레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란 사실이다. 이는 당시의 실제 사정이라기보다는 결과론에 입각해 뒷날 부회된 데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黃龍을 설정한 점이나 완공된 사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찰을 皇龍寺라고 명명한 점에서는 어떤 강력한 의도가 깃들어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므로 이는 당시의 실상이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서 유추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럴 때 각별히 주목해볼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은 고구려 승려 惠亮의 망명과 함께 그를 國統(僧統)으로 임명한 사건이다.

551년 거칠부를 비롯한 이른 바 8장군이 이끄는 군단은 백제 및 가야와 연합세력을 구성해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여 상류 지역의 고구려 10郡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때 거칠부는 거기에서 門徒를 이끌고 온 혜량을 만나게 되었다. 거칠부는 혜량과는 이미 舊面이었다. 그는 仕宦하기 이전 出家해 천하를 流浪하면서 몸소 숱한 체험을 하였다. 마침내 고구려 경역으로 들어갔다가 고승 혜량이 주석해서 講經하고 있던 절에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혜량의 격려와 함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신라로 귀환한 후 관료로 나아갔던 것이다. 거칠부가 선봉에 서서 한강 유역으로 나아갔을 때 고구려는 한창 內紛을 겪고 있었으며 그 여파가 변두리 지방의 유력한 사찰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백제와 신라 등의 연합세력이 큰 저항 없이 한강 유역을 쉽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 작용한 때문이었다.

거칠부를 따라 신라 왕경에 들어온 혜량을 만난 진흥왕은 그를 당장 國統[26], 혹은 僧統[27]으로 임명하는 등 상당한 예우를 다하였다. 바로 그 무렵 진흥왕은 娘城에 행차하였다가 彈琴臺에 머물던 대가야 출신의 악사 于勒을 河臨宮으로 불러들여 음악을 듣고 이를 배우도록 시켰다. 얼마 뒤 대가야의 음악에 대한 강경한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신라의 정식 음악인 大樂으로 받아들이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진흥왕이 외래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였으며 어떤 입장을 취하였던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이다. 진흥왕은 외래의 새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엄청난 포용력과 함께 적극성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가 영토 확장을 통해서 기도한 것은 단순히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한

26) 『三國史記』 40 雜志 職官 下 政官條
27) 『三國史記』 44 列傳 居柒夫傳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인간과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 등을 통해 신라문화의 전반에 대한 폭을 그만큼 넓혀 나가려는 데에 있었다. 그래서 외래문화도 필요하다면 彼我를 가리지 않고 수용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였던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결과인 한강 유역 진출이란 모험을 감행한 것도 결국 중국의 선진문물을 적극 수용하려는 데서 비롯한 발상이었음을 유추해낼 수가 있다.

국통(승통)으로 임명된 혜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던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다만, 그가 百座講會와 八關之法을 처음으로 열었음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28]. 백좌강회는 百高座會라고도 하여 이름난 고승을 그만큼 초빙해 대표적 護國經典으로 알려진 『仁王經』을 강론하면서 국가의 안위를 기원하는 법회이며, 팔관지법은 불교가 토속신앙을 포용해 치르는 혼합 행사로서 일종의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식이다. 양자는 다 함께 호국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혜량이 그밖에 신라 중앙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위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진흥왕을 대상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 자문을 감당한 사실 및 그것이 호국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음은 유추해내기 어렵지 않다. 기록상에는 더 이상 혜량이 수행한 역할이 보이지 않으나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볼 때 호국사찰을 대표하는 사원인 황룡사의 창건과도 결코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다. 신궁 건설은 물론 그를 황룡사로 바꾸어짓는 결정을 내린 장본인이 진흥왕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자문하고 유도한 것은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미루어 혜량으로 간주함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자신의 親政을 '開國'이라고 선언한 진흥왕에게 어울리는 결정과 선택이었다.

진흥왕은 혜량을 통해 고구려의 불교 나아가 북방(북조)의 불교를

28) 同上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받아들였다. 황룡사 속에도 그런 의식이 강하게 깃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흔히 지적되고 있듯이 북방불교는 北魏 불교의 특징으로서 흔히 王卽佛이 지적되고 있음은 다 아는 바와 같다. 鮮卑族 출신 왕조인 북위가 漢族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황제가 곧 부처라는 이른바 왕즉불 의식을 앞세웠던 것이다. 혜량의 건의를 받아 실시한 백고좌회 등 호국법회는 그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한편 신라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남조의 梁나라 및 백제의 불교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 법흥왕은 재위 8년(521) 백제의 사신에 딸려서 양나라에다 사신을 처음으로 파견하였다. 당시 불교를 혹신한 양나라 武帝는 天監 연간(502-519)에 새로이 한역된『아육왕경』의 강한 영향을 받아 스스로 轉輪聖王이라 자처하고 있었다. 양과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백제에도 그런 전륜성왕의식이 들어왔던 것 같다. 그것은 聖王이 스스로 그런 왕명을 지었던 데서도[29] 유추되거니와 실제로 興輪寺를 창건한 것도 그와 일정하게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제에서는 당시의 실상으로 미루어 전륜성왕사상을 처음 접촉한 것은 武寧王이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적으로 그를 구현해 보려고 시도한 것은 聖王이었던 것 같다. 양과 처음으로 통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제와 5세기 전반 이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밀월관계를 이어가던 신라도 자연히 그로부터 적지않게 영향을 받았을 공산이 크다.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을 재위 당시 '聖法興大王'이라 불렀던 것이나[30] 신라 최초의 사찰이 하필 흥륜사라고 명명된 것도 그와 무관하지가 않다. 이처럼 이미 법흥왕도 불교를 공인하면서 곧장 전륜성왕의식을 어렴풋하게나마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29) 조경철, 2006,「동아시아 불교식 왕호 비교 - 4~8세기를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43 ; 노중국, 2016,「신라 흥륜사 彌勒像과 황룡사 丈六尊像 그리고 진흥왕과 거칠부」『신라문화제학술회의논문집』37

30)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2,『譯註 韓國古代金石文(2)』,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蔚州川前里書石 乙卯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때는 전륜성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거친 토대 위에서이기보다는 백제와의 강한 경쟁의식 속에서 추진된 일종의 모방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사실상 신라에서 전륜성왕을 본격적으로 표방한 것은 진흥왕대에 이르러서의 일이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진흥왕은 스스로 전륜성왕이라 자처하였다. 이는 그의 두 아들을 銅輪과 舍輪이라 이름을 지은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다. 뒷날 진흥왕 말기에 황룡사의 主尊佛로 안착하는 丈六尊像이 인도 전륜성왕의 전형이라 할 마우리아왕조의 3대왕 아소카가 제작하려다 실패로 끝난 뒤 흘러 보냈다는 재료를 들여와 제작에 성공하였다는 설화는[31] 진흥왕이 진정한 전륜성왕으로서는 아소카를 능가한다는 의식을 지녔음을 반영하고 있다. 진흥왕이 거둔 성공을 당대 신라인들은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흥왕이 전륜성왕의 모델을 아소카왕으로 삼아 경쟁하려 한 것은 영역을 널리 순행한 사실, 그때 승려를 대동하고서 민심을 收斂하려 한 점, 가는 곳마다 石碑를 세워 영역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려 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보면 진흥왕이 친정할 무렵 신라에는 남조 계통의 전륜성왕 의식과 북조 계통의 왕즉불 의식이 함께 들어와 융합되고 있었다. 이제 그를 구현해갈 求心이 필요해진 상황이었다. 혜량이 입국하기 이전 신궁을 창건하려고 한 것은 한껏 고양된 국왕의 위상을 드높이려 한 의도에서였지만 그를 급작스레 포기한 것은 일종의 정치적·사상적 轉回였다. 아마도 혜량은 불교에 대해서는 물론 정치적 자문을 하면서 전륜성왕과 왕즉불 의식을 동시에 구현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책으로서 신궁을 황룡사 창건으로 바꾸도록 건의하였던 것 같다. 말하자면 남조불교와 북조불교가 하나로 융합된 데서 나온 호국적 발상에서였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통신앙으로서 그 속에 용신신앙까지 결합시킴으로써 마침내 황룡사는 신라 佛國土의

31) 『三國遺事』 3 塔像 皇龍寺丈六像條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중심지로 기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 의식의 한가운데에 바로 황룡사가 자리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신궁을 창건할 때부터 벌써 생각한 것은 국왕 중심의 지배체제 구축이었다. 본궁을 중앙부로 옮기려 한 데에는 왕경의 계획적 경영이 바탕에 자리하고 있었다. 기존의 본궁인 月城이 갖고 있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려 한 것이었다. 이때 왕궁을 중심부로 삼고서 왕경을 경영하려고 한 발상은 『周禮』에 의한 것으로서 그 모델이 된 것은 남조의 建康城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주례』를 근거로 표방하려 한 것은 바로 王道政治였다. 진흥왕이 영역 경계를 순행하면서 세운 순수비에 대동한 승려를 국왕의 바로 아래에 배치시키면서 비문의 내용을 불교 경전이 아닌 유학의 왕도정치를 앞세운 것은 자신이 불법의 구현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민을 구제하는 진정한 전륜성왕이라는 발로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 점이 스스로를 아소카 왕을 능가한다고 자처한 기본 요소이기도 하였다.

황룡사는 단순한 불교 사원이 아니었다. 당시의 시대상과 함께 진흥왕의 의지가 반영된 특이한 성격의 사찰이었다.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굳게 묶고, 전통신앙과 불교 및 유학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중핵이 바로 황룡사였다. 신라 왕경의 중앙일 뿐 아니라 영토의 중심이기도 하며 불국토 구현의 핵심이었다. 사실상 황룡사는 왕궁을 대행하는 기능을 한 것이기도 하였다. 진흥왕이 출가하였다는 것은 곧 황룡사에 주석해 왕궁처럼 기능하였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진흥왕의 사망을 장육상이 예견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점은 스스로 전륜성왕이고자 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황룡사는 신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특수한 성격의 사찰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황룡사는 착공한 지 13년만인 566년에 이르러 일단의 완공을 보았다. 이로써 호국사찰의 구심으로서 본격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나라 안팎으로 상당한 격동을 겪고 있었고 따라서 처음 설정한 위상이 아무런 보완적 조치 없이 그대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었다. 그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를 위해 장육존상을 만들고 나아가 마침내는 善德女王대에 이르러서는 황룡사9층목탑까지 세우게 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통일기의 떠오르는 새로운 기운과 함께 진행된 새로운 지배체제로 황룡사가 지닌 역할은 한계 상황을 맞아 또 다른 변신이 요구되고 있었다.

Ⅴ. 나가면서

황룡사가 진흥왕대에 창건된 뒤 규모면에나 내용면에서 신라 불교의 구심적 역할을 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런데 황룡사가 자리한 곳이 처음부터 사찰을 건립하기로 예정된 것은 아니었다. 궁궐을 지으려다가 갑작스럽게 사찰로 바꾼 것이었다. 신라 궁궐은 원래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춘 이후부터 오래도록 月城에 자리하여 왔다. 그러다가 진흥왕이 친정하면서부터 그에 대신해 새로운 궁궐 건설을 추진하다가 황룡사로 고쳐지은 것이었다.

그 동안 황룡사를 둘러싸고 전개된 연구 경향을 살피면 주로 창건 이후의 기능에다 초점이 맞추어진 느낌이다. 왜 신궁을 紫宮이라 이름 붙여 건설하려고 하였는지, 그러다가 왜 사찰로 바꾸어짓게 된 것인지, 그것도 하필 皇龍寺란 寺名을 갖게 된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매우 궁금하게 여겨지는 대목인 데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 이에 여기서는 그것이 당시의 정치사회적 현상과 깊이 연루된 것이라 설정하고서 그 점을 밝혀보려는 데에 주력하였다.

진흥왕대는 이제 막 부체제를 벗어나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발돋움하는 변화를 겪던 시기였다. 국왕의 위상은 탁부 부장의 성격을 벗어나 초월자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제 여러 측면에서 그를 뒷받침해 주는 외형이나 정책 및 제도 등이 요구되고 있었다. 궁궐을 새롭게 정비한다거나 神殿이라 할 사원을 새롭게 정리하는 일이 긴요하였다. 그 일환으로서 진흥왕이 母后의 섭정을 벗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어나 막 친정을 시작하던 551년 연호를 開國으로 바꾸면서 추진한 것이 신궁의 건설이었다. 사실 신궁 건설을 제대로 추진하는 데에는 단순히 그 자체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왕궁은 왕경의 심장부이므로 후자의 정비까지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를 위한 정지작업은 이미 법흥왕대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때 대릉원 일대에 집중적으로 조영되던 지배층의 무덤을 외곽으로 옮긴 것이었다. 그런 시도는 540년 법흥왕 사망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이를 전제로 해서 551년 무렵 신궁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그러다가 신궁 건설을 포기하고 대신 황룡사로 바꾸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아마도 당시 불교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볼 때 고구려 귀화승으로서 국통(승통)이 된 혜량을 제외하고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아마도 혜량의 자문과 건의로 진흥왕이 신궁 건설을 포기하고 황룡사로 전환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도 거기에는 당시의 실상으로 신궁보다 한층 요긴하고 시급한 것이 사찰이라는 인식이 작용하였을 터이다. 왕즉불이나 전륜성왕 의식을 수용하여 불교의 호국적 성격을 강조하고 황룡사를 그 중심 도량으로 삼으려는 기획에서였다. 왕경의 한가운데에 둠으로써 그것이 곧 왕경의 핵심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불국토 구현의 중심지라고 인식시키기 위한 발로였던 것이다. 그 밑바탕에는 실로 신라국왕을 황제로 간주하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황룡사라 이름이 붙여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로써 황룡사는 정치와 불교의 중심지로 기능하게 된 것이었다. 진흥왕이 친정하면서 開國이란 연호를 사용한 것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시도였다.

주제어 : 황룡사, 진흥왕, 9층목탑, 장육존상, 황궁, 월성, 호국. 불교식 왕명시대.
투고일 : 2017. 01. 11. 심사완료일: 2017. 02. 24. 게재확정일: 2017. 02. 25.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Hwangnyongsa Temple and Intention Thereof

Ju, Bo-Don

This paper deals with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Hwangnyongsa temple in the 1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Jinheung (554 AD) from the viewpoint of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Hwangryongsa temple was the most central temple during the middle ancient period called the Buddhist royal name era. This is clearly supported by the fact that Hwangnyongsa temple possesses Nine-story Wooden Pagoda and Sixteen Feet Bronze Buddha that are two of the Three Treasures of Silla which are recognized as treasures of patriotic character.

Hwangnyongsa temple was a core temple that served as a means to raise the status of the king and to defend the nation through Buddhism at least in the middle ancient period when Buddhism became a dominant ideology. Thus, Hwangryongsa temple itself is an indispensable object in further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Silla in the middle ancient period. That is the reason why there have been many papers on Hwangnyongsa temple so far. However, they have mainly focused on the function or personality of Hwangnyongsa temple but mostly neglected the background of its establishment.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

Considering such a problem, this paper dealt with the process and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Hwangnyongsa temple as a major object. In particular, Hwangnyongsa temple site was selected as a site for the imperial palace to move from where was nearby Wolsong, not a site to establish a temple. However, in the middle of planning the construction, that plan suddenly changed and this paper paid special attention to such facts. It was attempted to reveal the reality in detail under the assumption of certain political and social reality and a new ideological background had worked on them.

Key words : Hwangnyongsa temple, King Jinheung, Nine-story Wooden Pagoda, Sixteen Feet Bronze Buddha, The imperial palace, Wolsong, Patriotic, Buddhist royal name era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05(KST)